

만남

2022년 10월
통권 212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2022년 9월 10일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특 쓰는 영성	-----	3
기도 맛들이기	-----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 주시다-----	5
영성의 숲	-----	8
영적 상담	-----	12
성경 속의 사람들	-----	14
축일을 축하합니다	-----	17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18
공동체 소식	-----	19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0
월 중 행사표	-----	21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2
미사안내	-----	23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 모든 이들에게 열린 교회를 위하여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여 용감하게 나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언제나 공감대를 이루는 분위기 속에서 연대와 형제애, 환영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성인 (홍성남 마태오 신부님)

우리 교회에서는 성인 신심이 아주 중요한 신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례명을 자신이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들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성인전을 읽으면서 생기는 심리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명 ‘성인 콤플렉스’. 성인처럼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종교적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인들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을 혐오하기조차 하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왜 그런가? 성인전에서 성인들은 완전한 사람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은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성인들도 한 가지 이상의 심리적 문제를 가졌던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뽑으신 12사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황님이셨던 베드로 사도는 욕하는 성격의 소유자였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정도로 나약한 성격이었습니다. 토마스 사도는 의심이 많아서 주님께 핀잔을 들어야했던 분이고, 야고보 형제는 자리에 욕심이 많았던 사도들이었으며, 요한 사도는 주님을 버리고 옷을 다 벗은 채로 도망을 친 비겁자였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교회의 성인들은 인간적인 하자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을 왜 성인으로 추대했는가? 성인들은 평생을 두고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죄인인 자신을 받아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분들이란 것입니다. 성인들은 자신을 성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심한 부담감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구라도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성인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의 삶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는 삶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배우와 똑같은 얼굴로 성형수술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인 신심이 깊어지면서 가짜 성인, 짝퉁 성인들도 적지 않게 생겼습니다. 성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는 하는데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손에 온종일 묵주는 들고 다니는데 웃음기는 전혀 없는 사람, 본인 스스로 성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만족해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성인이 아니라 진상들입니다. 이런 진상들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기 일쑤입니다. 진정한 성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 기도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지독한 애정 결핍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그러나 마음 하나는 비단결처럼 고운 아이들 80여 명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한 청소년 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저녁기도 시간이었는데, 기타며 전자 오르간, 드럼 등으로 구성된 미니 밴드에 맞춰, 덩치가 산만 한 아이들이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성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깐 착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록 페스티벌에 와 있는 것인가?’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고 온몸을 흔들면서, 목청껏 성가를 부르는 아이들의 얼굴이 참으로 해맑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 활기찬 분위기는 함께 했던 노부부와 저까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게 만들었고 주님께서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보스코 오라토리오의 기도 시간 역시 비슷했습니다. 돈보스코는 기도 시간이 아이들에게 고통이나 부담을 주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보다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라토리오 안에서의 기도는 언제나 짧고 단순명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의가 없다거나 준비가 소홀하지도 않았습니니다. 본질이나 핵심을 빼먹지도 않았습니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는, 오라토리오에서 기도 시간은 설렘과 흥으로 가득한 축제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희 살레시오회 총장 신부님께서 방한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초대형 현수막에 슬로건을 적어 관구관 외벽에 붙였는데, 그 내용은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였습니다. 맞습니다. 기도 역시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해 마치 연옥벌이라도 받는 듯한 표정은 아닌지요? 입 한 번 뻥긋하지 않고, 팔짱 딱 끼고, 인상 팍 쓰고, 지나치게 무성의한 모습은 아닙니까? 밀린 방학 숙제 해치우듯이 아무런 감흥 없이 초스피드로 기도를 바치는 것은 아닌가요? 기도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설레는 마음과 기쁨 얼굴, 환희로 가득 찬 영혼으로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기도가 부담이나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기쁨 넘치는 감사의 기도, 행복으로 충만한 찬미의 기도가 좀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기쁨이요, 환희, 축제로 여기고 그 시간을 좀 더 즐기고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기뻐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기쁨 속에 주님을 섬기십시오”(돈보스코). “기쁨은 기도입니다. 기쁨은 굳셈입니다. 기쁨은 사랑입니다”(마더 테레사).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주시다 (루카 17,11-19)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8장 “주께 감사드리자”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내려주소서.
- ❖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7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 1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 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 16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 18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19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했던 적이 있습니까?*

☞ *간절한 청이 이루어진 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주님께 감사드린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을 감사드리는 신앙의 삶은 그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지요. 감사할만한 것이 없었습니까? 감사는 무엇인가를 얻으면서 체험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무언가를 잃으면서 더 크게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챙기던 이가 몇 끼만 식사를 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주어져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반복될수록 일상이 되어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지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그것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는 감사함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감사드리러 간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드리지 않은 아홉 중의 하나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탁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8장 “주께 감사드리자”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목주기도 성월 특집] 목주기도 성월의 의미와 신앙인의 자세

1. 목주기도 성월의 기원과 의미

목주기도 성월은 다른 성월과 마찬가지로 그 달의 중요한 축일과 연관하여 제정되었다. 전례력에 의하면 10월 7일은 "목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다. 10월 7일이 목주기도의 마리아 축일로 정해진 계기는 약 400년 전의 사건에 의해서이다. 즉 1571년 그리스도교 연합 함대가 로사리오의 성모님의 도움으로 레반트 해전(1571. 10. 7)에서 터키 함대를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교황 비오 5세는 성모님의 원조를 부탁하고 당신 자신도 매일 목주기도를 바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해서 바치게 하고 또 병사들에게도 목주를 주어 기도하게 하였다. 결국 승리는 그리스도교 연합 함대에게로 돌아갔고, 이에 베네치아의 원로원은 연합제국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대승리를 안겨준 것은 장병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순전히 목주기도의 성모님이다." 이를 계기로 다음 교황인 그레고리오 13세가 성모님의 원조를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목주기도의 축일을 10월의 첫째 주일로 정했다. 그 후 19세기에 교황 비오 9세 및 레오 13세 교황은 목주기도에 대한 회칙을 내고, 특히 10월을 목주기도의 성월로 정하여 신심을 격려했다.

따라서 목주기도 성월은 우리로 하여금 목주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 신비를 살도록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성모님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육화 사건을 통한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전적인 순명과 희생으로 동참하신 성모 마리아의 믿음의 삶을 묵상하고, 이를 통해 구원의 신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쇠신하기 위해 목주기도 성월이 제정된 것이다.

2. 마리아 공경의 의미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마리아 공경 열기는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구미 교회에서 마리아 신심이 감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 신심은 순교자 신심과 함께 한국 신자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로인해 개신교 신자나 비신자들로부터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는 말을 듣기도 하나, 이는 마리아 공경의 올바른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리아 신심에 대한 일체의 부정이나 과장된 신심은 모두 피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마리아 신심을 위해서도 마리아 공경(신심)의 근거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교회는 늘 하느님의 은총을 힘입어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들 위에 들어 높임을 받은 마리아가 천주의 모친으로서 교회의 특별한 예식으로써 공경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즉 마리아께 대한 각별한 공경을 통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그분의 복음이 제대로 생활화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마리아에 대한 가르침(교회헌장, 8장, 52-69항),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 "마리아 공경"(Marialis Cultus, 1974)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Redemptoris Mater, 1987) 등에서 한결같이 견지되고 있다.

마리아 신심의 근거는 성서에 기초하고 있다. 즉 예수 탄생의 예고와 그에 대한 전인적 응답에 기초한다(루가 1,26-38; 마태 1,18-25). 하느님께서 때가 왔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다. 이를 위해 인간의 협조와 동참을 요구하셨고, 이에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로서 이러한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 결국 하느님의 결정적 구원역사가 마리아를 통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서 단순히 예수님과 생물학적이고 혈연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는 우리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 여인이 아이를 갖고 출산하여 모자관계를 맺었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랜 교회 전통에서는 마리아께서 육신으로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이미 마음 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믿음 안에서 잉태했다고 증언한다. 즉 천사의 수태고지에 "예"(Fiat)라는 응답을 통해 믿음으로 구세주를 잉태하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다.

또한 마리아는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하느님의 구원역사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류를 대표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느님과 일치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아담과 에와, 노아에 의한 구원, 아브라함의 계약 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리아의 신앙행위는 하느님이 새롭게 이룩하시는 구원사건의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마리아 신심(공경)의 근거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리아 신심은 마리아 찬미를 궁극적 목표로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성자 안에서 드러난 성부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미하는 데로 이어져야 한다. 즉 마리아 신심의 정당성 여부는 이 신심이 마리아를 거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지향되어 있는가에서 판별된다.

마리아 신심은 신자들이 마리아 개인을 찬미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데에서 목표에 이르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느님께 자신의 전존재를 의탁하는 마리아의 신앙적 삶을 세계 현실 속에서 생활화하는 데에서 충만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신약의 신앙적 인간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예수님과 일차적인 관계를 맺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한 신앙인이셨다. 당신 아들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십자가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부활의 기쁨 모두를 체험하고 동참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새롭게 관계지워 주신 것이다.

따라서 마리아 공경(신심)의 목표는 단순히 마리아를 공경하는데서 끝나서는 안된다. 마리아께 대한 합당한 공경을 통해 마리아의 신앙의 삶을 본받고 이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할 때 그 본연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3. 묵주기도의 의미

로사리오(Rosarium)는 '장미화관', '장미 꽃다발'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로 묵주 또는 묵주기도를 가리킨다.

묵주기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도미니코 성인(1170-1221)이 선교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여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자, 성모님께서 나타나 묵주를 주시고 묵주의 기도를 널리 전하라고 하셨다는 설, 도미니코회 회원이 신앙의 진리를 연속하여 설교할 때 작은 주제가 끝날 때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합송하였던 설교 방식에서 유래한다는 설, 12세기 문맹자들이 전례에서 시편의 귀절을 읽는 대신 주님의 기도 150회를 3부분으로 나누어 암송하던 관습에서 발전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렇듯 묵주기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 내에서 신자들의 신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되어 왔고 여러 교황들에 의해 권장되었다.

묵주기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정해진 것은 1569년 교황 비오 6세의 칙서에 의해서이다. 이 표준에 따르면 묵주기도는 소리기도(염경기도)와 마음기도(묵상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소리기도로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이 합해 1단을 이루고 이것이 모여 5단 또는 15단이 된다. 그리고 마음기도의 내용은 구원의 역사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묵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소리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신비에 일치하신 성모님처럼 인류 구원의 협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도 "Marialis cultus"에서 묵주기도를 복음적 기도라 부르고 묵주기도의 핵심은 관상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관상 없는 묵주기도는 혼이 빠진 몸이며, 그렇게 되면 묵주를 손가락 끝으로 넘기는 것은 형식적인 것을 다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헛소리가 될 위험이 있다." 또한 묵주기도의 신비의 묵상은 미사의 훌륭한 준비가 되며, 미사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묵주기도 바치는 것은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단순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누구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신심의 하나이다. 성모님께서도 세계 곳곳에 발현하실 때마다 인류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고하셨다.

4. 묵주기도 성월을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

묵주기도 성월은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성모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고 현실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묵주기도 성월을 보내는 신앙인은 먼저 구원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다가오심을 느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모님의 모범과 도움을 힘입어 효성스런 자녀로 충실히 머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고, 나와 이웃의 회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모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요, 성모님처럼 인류 구원의 성실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질문

Q. 주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어렵습니다. 사랑은커녕 미워하지만
않아도 다행일 정도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A.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초기 성인기에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관계 맺기에 별 이상이 없으면 30세가 넘으면 싫은 사람이나
상황을 견뎌내고 존중하는 힘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요.

관계 맺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첫째,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때입니다. ‘친해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왠지 나를 꺼리는 것 같다’거나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민감한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아 다른 이들의 손길을 거부하기에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비교적 편안하게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을
‘굴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자기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과만 끼리끼리 다니려는 편협성을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괴팍해집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같이 방을 쓰는 사람들, 식당이나 성당 자리를 친한
사람들끼리 쓰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심리적 거리를 두려고 할 때입니다. 물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내부의 공격성이 튀어 나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심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의를 지킨다고 하지요.
예의란 존중의 의미뿐만 아니라 방어적 개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지나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거리를 두어서 갖는 편안함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말은 이런 심리적 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나를 거부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 맺기는 신앙생활에서도 같게 나타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느님이 나를 미워하실지도 몰라’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느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고 혼자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보면서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성경 해석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런 현상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내적인 문제, 특히 병적인 대인관계가 신앙생활로 연장되어 나타난 경우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느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지옥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안 만들었다. 나를 싫어하는 놈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었지.” 그러자 그 사람은 “흠 그렇군요. 그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왜 연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하고 물었지요.

하느님께서 한숨을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그 아이들 때문에 나도 골치 아프다. 천당 입구까지 달려와서는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고 내가 부르면 자기들은 아직 자격이 안 된다면서 울며불며하는데 등 돌려 도망치지도 멀리 가지도 않고 근처에서 내가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속을 있는 대로 태우는구나. 그렇다고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고 해서 대안으로 속태우며 살라고 연옥을 만들어줬다.”



♥ 성경 속의 사람들 - 토빗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페르시아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기록들이 꽃피웁니다. 잠언과 같은 지혜문학과 미드라쉬 문학이 대표적입니다. 미드라쉬(‘찾다, 탐색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는 성경의 가르침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풀어내어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할라카 미드라쉬’라고 부르고, 구체적 인물의 삶을 극적인 방식을 통해 이야기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깨우치도록 이끄는 것을 ‘학가다 미드라쉬’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토빗, 유딧, 에스테르’ 등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토빗기는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쉬 작품들이 그러하듯,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한 설정일 뿐이고, 실제 역사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만들어진 시대는 기원전 2세기 초로 보입니다. 이 책은 국가나 민족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개인의 삶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이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독자들을 초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빗’(주님은 좋으시다)은 아시리아에 의해 니네베로 유배 간 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토빗기의 첫 부분에 토빗이 유배 이전 고향에서 어떻게 살았는가(토빗 1,3-9)를 말하는데, 이는 신명기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납탈리 지파, 곧 북왕국의 주민이었지만, 그럼에도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찾아가 거기에서만 제물을 바칩니다(신명 12,4-12), 가난한 이를 위한 십일조(신명 14,22-29; 26,12-13), 만물의 봉헌(신명 15,19; 26,2), 레위인의 몫(신명 18,3-4) 등에 대한 대목도 다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유배를 가며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혼(토빗 1,9)과 음식 규정(1,11)을 지키고, 정결례(2,5.9; 참조 7,9ㄴ)를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갑니다. 그의 실천 중

자선(1,16-17ㄱ), 특히 죽은 이를 장사지내주는 일(1,17ㄴ-18)이 강조됩니다.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 모든 재산을 버리고 달아난 것(1,18-22)도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은 이를 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는 이국의 땅, 이민족들 가운데 살면서도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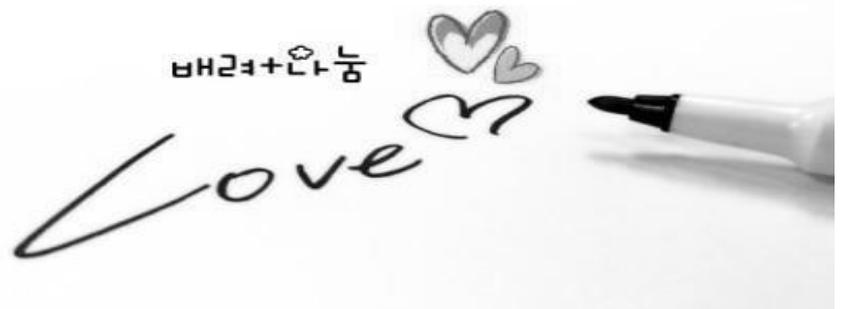
그가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아들 토비아에게 남기는 유언(4,3-21)도 자기처럼 ‘율법에 따른 삶에 충실하라’는 권고의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라’, ‘어머니에게 효도하라’, ‘간음하지 마라’는 십계명의 규정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진리와 선의 삶의 살라’, ‘하느님을 찬미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과 결혼하라’, ‘자선을 행하라’, ‘주님께 간청하라(기도하라)’ 등 당시 ‘해외 유대인 공동체’(디아스포라)에서 강조되던 윤리들이 등장합니다. 결혼과 관련된 말 중, ‘우리는 예언자들의 자손이다.’(4,12)는 말은 그들이 지녔던 선민의식을 엿보게 해줍니다. 자선(4,7-11)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4,14-17)이 중요한 실천으로 강조되는데, 이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점(4,11.14)은 특이할 만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충실하게 살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자녀를 교육하는 토빗, 그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오순절 축제를 맞아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동포 중의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거리에 그 시신이 버려졌다는 소식이 그의 집으로 전해집니다. 토빗은 지체하지 않고 나가 그 주검을 수습하고 장사를 치릅니다(2,1-7). 사람들의 조롱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아모 8,10; 토빗 2,6)이 현실처럼 다가와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2,7). 장사를 지내고 돌아온 그는 더위를 피해 마당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참새 똥이 떨어져 그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2,9-10). 이미 재산을 임금에게 다 빼앗긴(1,20) 그의 집은 점차 기울입니다. 품팔이로 가사를 책임지며 4년을 버티던 그의 아내는 참다 참다 결국 한 마디 합니다. “당신의 그 자선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2,14) 토빗은 비참한 자신의 현실 앞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목숨을 앗아가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3,6) 바로 그날에 ‘엑바타나’라는 또 다른 유배지에서 ‘사라’라는 여인이 절망 속에서, 토빗처럼 ‘죽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3,7-15). 그는 신혼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아스모대오스’(페르시아의 악령)에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져 하녀에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소연 할 데가 어디에도 없던 사라도 슬픔에 가득 싸여(3,10) 그렇게 주님께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상황,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뚫고 나갈 수 없는 거대한 한계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하느님을 찾습니다. 비록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주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마침내 하느님 대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의 천사 ‘라파엘’(주님께서서 치유하신다)을 보내 그 둘을 도와주도록 하십니다(3,16-17).

이제 토빗의 아들 토비야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와 만남으로써 사라는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것이고, 토빗은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 10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데레사	최 영 숙	18일	루카	현 안 이 육 태 동 호 빈
4일	프란치스코	김 진 호 김 재 영	22일	살로메	정 명 옥
	프란츠	김 기 현			
	프란치스카	김 인 순 이 정 은			
7일	프랑크	김 기 년	23일	이냐시오	윤 용 기
	로사리아	조 현 영			
16일	마르가리타	강 순 행 이 가 나	28일	시몬	김 동 수 최 화 영 최 리 간 리 남 재

❖ 10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소화데레사	김영자(B) 정옥선(H) 김경자(H) 노금순(O)	15일	데레사	임진영(O)
4일	프란치스코	부준우(O) 임종수(O) 조우성(H)	18일	루카스	이현석(H) Setiahardja Ulung(O)
	프란치스카	윤주해(B) 안수경(O)			
	프랑크	정유진(H)	30일	루실라	권명옥(O)

❖ 10월 성가번호 ❖

10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2일	480	210	176	271
9일	517	221	459	418
16일	23	215	182	278
23일	450	201	171	411
30일	18	143	166	255

❖ 10월 전례 봉사 ❖

10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커피봉사
2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	4구역
9일	최승진(바오로) 신지혜(세실리아)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	요셉 마리아
16일	청년회	청년회	*	청년회
23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허길조(안드레아스) 허영자(가밀라)	*	1구역
30일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	2구역

♥ 9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9월 18일 기준)

강신행, 권지연, 강순행, 김민옥, 김경미, 영희 Eggerstedt, 손모니카, 심동근, 우동천, 윤석순, 이정수, 정마리아, 정명옥, 최장용, 최순남

❁ 계좌입금(9월 18일 기준)

강일남, 김동수, 김부남, 김대현, 김수희, 김유석, 김원자, 김진호, 김치수, 남궁춘배, 배성우, 박정은, 백정선, 송문규, 육종인, 이서석, 이명원, 이공종, 이영원, 이성원, 이석우, 이경규, 정정숙, 최종금, 최성자, 허길조, 허두욱, 허채열, 허선애, 현영애, 춘욱 Zerbock, Alice Eilinghof, 옥수 Renitzsch, Caroline Tunas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9월 20일 자 통장 잔액은 23.088,17유로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0월 목주기도 성월을 맞아 매주 주일미사 전 2시 15분부터 목주기도 5단을 공동으로 봉헌합니다.
2. 10월 2일 주일미사 중 4명의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3. 10월 11일 화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4. 10월 27일(목) 17시 30분 만남성당에서는 연령회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5. 10월 23일 주일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아울러 Weltmissionssonntag이기도 합니다. 2차 헌금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10월 30일 일요일 3시에 Sommerzeit가 해제됩니다.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자진 헌납금 계좌에 대해서

자진 헌납금 증명서(스펜덴 증명서) 서류 확인을 간소하기 위하여 함부르크 교구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교우분들이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해 주시기를 지시하였습니다. 자진 헌납금 수입과 그 외 수입금을 구분하기 위하여 스펜덴 증명서를 교구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는데, 수입금 관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합니다. 현재 공동체 계좌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교구 새 계좌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앞으로 공동체 자진 헌납금은 위 계좌로 송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을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하신 분들은 송금 후 공동체 총무 이정훈(요나스)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에게 송금하신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10월 1일 브레멘 공동체 미사 후 St. Hedwig 성당 주임 신부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부회장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 일 학 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통신교리 신청자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재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한솔나(리드비나)
구 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 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신지혜(체칠리아)		
		부회장	현유건(레오나르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10월(묵주기도 성월)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토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브레멘 공동체
2	일	연중 제27주일 / 군인 주일		
3	월	개천절		
4	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5	수			
6	목			
7	금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8	토	한로		오스나브뤼크
9	일	연중 제28주일 / 한글날	청년회 기도 모임	
10	월			
11	화		꾸리아	
12	수			
13	목			
14	금			
15	토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하노버 공동체
16	일	연중 제29주일		
17	월			
18	화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19	수			
20	목			
21	금			
22	토			
23	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 전교 주일	Weltmissionssonntag	2차 헌금
24	월			
25	화			
26	수			
27	목		연령회 월례회	
28	금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교정의 날
29	토			
30	일	연중 제31주일	Ende der Sommerzeit	
31	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 월보 만남 ❖

편 집 인 이재혁 안드레아 hmann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